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이때에도 주 날개 밑에서 평안히 쉴 수 있기를 (찬송가 419장)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 소식 전합니다.

지난달은 마을에 홍수가 나서 오지 말라고 해서 마을에 못 갔고, 이번 달은 다음 주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당분간(5월까지) 마을에 가지 말라고 하네요. 수요일(18일)에 마을에 보낼 일부 짐을 배에 실었는데, 목요일에 연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부두에 나가 짐을 다시 찾고, 대신 마을에 가지 못한다는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괜찮은가요? 묻는 분들에게 괜찮은 듯 보이나 괜찮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는데, 어젯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확진자 발견, 오늘 자정부터 파푸아뉴기니 시민과 영주권자 외에는 입국 불가능. 이곳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사역의 우선순위는 구약 파노라마의 자문위원 점검이었습니다. 번역은 다 했는데 점검받을 준비도 다 되었는데 자문위원 점검만 받으면 수정해서 책으로 인쇄할 수 있는데 하면서 자문위원 찾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이 5월에 오실 수 있다고 하셔서 됐다, 그러면 그때 점검받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역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마을 사정으로, 이번 달에는 코로나19로 마을에 못 가고, 지금으로서는 5월에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오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호주 시민들의 여행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어찌 저희뿐이겠습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생기지요? 나라와 나라가 문을 닫는 이때지만, 기도에는 국경이 없으니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상황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곳 파푸아뉴기니를 지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 마을에서 누가복음 6-12장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검하고, 요한 1, 2, 3서를 초역하고 있는 번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 4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보내며 카니누와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 코로나19의 예방 조치를 잘 지켜서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지난 월요일(16일)에 번역자 실버스터가 아들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알로타우로 나왔습니다. 1월 기도편지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돕는 손길을 통해 배 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로타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원인이 잘 밝혀지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편지에는 더 기쁜 소식을 가득 담아 보냈으면 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샬롬!



2020년 3월 21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